

사직동 통기타 거리, 세대 아우르는 골목상권 육성

시 ‘지역특화 예비 우수상권’ 선정
X세대 감성·MZ세대 콘텐츠 결합
야외 버스킹 공연장·청년 점포 유치

광주시 남구가 쇠락한 사직동 통기타 거리를 음악과 청년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골목상권으로 육성한다.

영업을 중단한 점포들이 속출하고 거리에는 수 년째 붙어 있는 포스터가 그대로 방치돼있는 등 거리가 쇠락했다는 지적(2024년 3월 13일자 광주일보 7면)에 따라 상권 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가 실시한 ‘지역특화 예비 우수상권 발굴·육성 공모사업’에서 사직동 통기타 거리가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시비와 구비 등 총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 상권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상권 특화 사업은 세대 간 협업을 통해 X세대의 음악 감성과 MZ세대의 콘텐츠 기획력을 결합하는 ‘음악기반 골목상권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단기 정비나 간판 교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인과 주민, 음악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골목 내 야외 버스킹 공연장을 조성해, 통기타 거리 음악협회 소속 가수들과 통기타 그룹, 아마추어 동호회 등 다양한 음악인이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상시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 비어 있는 상가 2곳에는 청년 점포를 유치하고, 연간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경제적 기반을 제공해 골목상권의 연령대와 기능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마케팅 요소도 강화된다. 남구는 사직동 통기타 거리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골목 소식을 전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확산시킬 예정이다. 스탬프 투어 앱 운영, 야간 경관조명 개선, 거리 내 음식점 메뉴 가격 인하 등 소비 유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시간우체국 건립과 살롱드 사직 프로젝트 등 현재 사직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문화재생 사업과도 연계해, 거리를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 코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사직동 통기타 거리는 1970~1980년대 포크 음악 열풍을 이끌며, 싱어송라이터 김정호를 비롯한 많은 음악인들의 발자취가 담긴 거리다.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던 통기타 거리는 2017년에는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리모델링이 추진되며 활기를 되찾기도 했다. 당시 24곳이었던 점포는 32곳으로 늘



광주시 남구 사직동 통기타거리 골목이 오가는 시민 없이 행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었고, 연간 방문객은 900여명에서 4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후 관리 주체가 불명해지고, 상권 유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끊기면서 점포 수와 유동인구 모두 급감했다.

남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적인 분위기 반전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

한 옛 거리 복원이 아닌, 새로운 세대가 경험할 수 있는 도시형 문화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남구 관계자는 “사직동 통기타 거리는 광주 포크 음악의 정체성을 품은 공간”이라며 “통기타 거리 상점가의 매출 증대와 신규 음악인이 상생하는 골목상권을 만들어 사직동 일대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동구, 우울 고위험군 대상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 동구는 오는 10월까지 우울 고위험군 15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인 ‘마음 치유 북치럼’을 운영한다.

‘마음치유 북치럼’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가진 대상자들이 예술을 매개로 정서적 문제를 극복하고 공동작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미술·음악 치유 프로그램이다.

예술약방과 협력해 10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광주시 동구 산수동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운영된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미술(감각 지도 그리기·감정 색으로 표현하기·자연 활용 작품 만들기), 음악(즉흥 악기 연주·녹음, 음악감상), 감상·전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 관람·제작 작품 전시) 등이다. 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고 직접 만든 작품은 전시를 통해 공유하며 성취감 등을 높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감을 경험한 참여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3천여세대 아파트 단지 진입로, 교행 불가능 상태로 준공

선운2지구, 공공·지주택 동시 진행
도로 확장 부지, 사업 대상지서 빠져
광산구, 예산검토 1~2년 소요될 듯

광주시 광산구 선운2지구에서 지구단위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3000여세대 아파트 단지의 진입도로 일부 구간이 차량이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고 인도마저 확보하지 않은 채 준공돼 말썽이다.

14일 선운2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신축 완공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선암동 812번지 일대 2960여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대지면적 39만여㎡)와 관련, “진입도로 폭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공공택지개발사업과 지역주택사업이 동시에 진행돼 왔다.

문제의 진입도로는 하천을 따라 전체 1여㎞를 폭 12m 넓이로 확장 조성된 곳인데, 중간 100여m 구간이 확장 전 도로폭인 4m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차량 교행이 어려워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별도의 인도마저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에까지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는 선운 2지구 지구단위개발사업이 LH가 추진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J회사의 민간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



3천여세대 아파트 서측 진입도로가 일부 토지를 사업 대상지에서 제척시키면서 중간 100m 구간이 차량이 교행할 수 없는 폭이 좁은 상태로 준공돼 있다.

정 부지(광산구 여등대로 648번안길 58)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는 당초 도시계획상 도로 확장 부지에 포함돼 있었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사업 대상지에서 제척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해당 토지의 경우 지난 199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2018년 지역주택조합 사업예정지가 되면서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부지에는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3000여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심지(항아리상권)

로 바뀌어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 특혜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해당 토지의 경우 지구단위조성계획의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조속히 해당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 지정해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별도의 설계용역비와 보상비,공사비 등 자체 예산 투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도시계획선을 재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돼 1~2년 이상의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서구, 5·18 45주년 기념

18일 마을버스 ‘760번’ 무료

광주시 서구는 오는 18일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하루 동안 마을버스 760번을 무료로 운행한다.

마을버스 760번은 양동전통시장, 발산마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학생문화회관, 운전저수지, 서구문화센터, 풍암고 등을 경유하며 서구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앞서 서구의회는 지난달 25일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5·18 기념일에 마을버스 무료 승차를 지원하는 내용의 ‘광주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마을버스 무료 운행은 단순히 교통비 절감을 넘어 민주·인권·평화의 5·18정신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교통복지와 5·18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북구 ‘인문학 프로그램’

8월부터 지역 내 도서관

광주시 북구가 오는 8월부터 지역 내 도서관에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광주시 북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길 위의 인문학’ 및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공모는 전국의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북구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2개 도서관(2개 프로그램), ‘지혜학교 사업’에 4개 도서관(5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인문학에 대한 관심 증진을 목표로 강연, 체험 및 지역 인문자원 탐방을 결합한 기본 과정이다.

일곡도서관의 ‘무형유산 후계자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수업’, 양산도서관의 ‘명작을 읽고, 명화를 보고, 명곡이 흐르는 시간’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지혜학교’ 사업은 인문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해보는 심화 과정이다. 흥중도서관 ‘철학의 위안’, 운암도서관 ‘문명의 횡단자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와 ‘세계 명작 극장’, 양산도서관 ‘글쓰기로 조각하는 인간의 삶’, 신용도서관 ‘미술사를 걷다 지혜에 닿다’ 등이다.

참여자 모집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북구청 도서관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일상에서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한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건강기능식품 1000ml x 3병(3,000ml)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